첫 노래

리코더로 「달빛 아래서 (Au clair de la lune)」 불기

리코더 「달빛 아래서 (Au clair de la lune)」 계이름 악보. 처음 하는 사람도 쉽게, 음마다 운지가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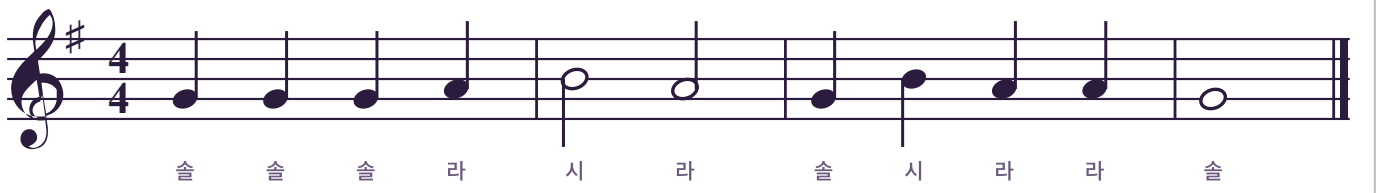
달밤을 노래한 18세기 프랑스 민요입니다. 솔·라·시 사이를 부드럽게 오가서 두 번째 노래로 딱 좋습니다. 사용하는 음은 3개: 솔·라·시. 아래에 리듬이 있는 음과 각 음의 운지가 있습니다.

음

솔 솔 솔 라 | 시 라 | 솔 시 라 라 | 솔

블록이 길수록 긴 음입니다. 선은 마디의 경계입니다.

오선보



같은 노래를 오선보로 봅니다. 아래에 음 이름이 있습니다.

계이름으로 쓴 음

솔 솔 솔 라 시 라 솔 시 라 라 솔

소프라노 리코더용, 바로크식 운지입니다.

운지

재생을 누르면 음을 들을 수 있고, 카드를 누르면 부는 법이 보입니다. 검은 구멍은 막습니다. 왼손이 위(엄지는 뒤, 1~3번 구멍), 오른손이 아래(4~7번 구멍)입니다.

연습 팁

- 음마다 「투」 하고 혀를 써서 불어요(텅잉). 같은 음이 이어져도 하나하나 또렷하게 들립니다.
- 뜨거운 수프를 식히듯 부드럽게 불어요. 너무 세게 불면 삑 하고 한 옥타브 위 음이 납니다.
- 손가락 끝이 아니라 손가락 볼(부드러운 부분)로 구멍을 막아요. 틈으로 바람이 새지 않습니다.